<10.16873/tkl.2017. 76. 49>
한국문학논총 제76집(2017. 8) 49~86쪽

# 근대 한국 전래동화집의 문예적 성격 고찰*

권 혁 래**

차 례

1. 연구의 시각
2. 근대 한국 전래동화집의 출판
3. 근대 한국 전래동화집의 수록 작품 목록과 문예적 성격
4. 인물과 주제의 종합적 고찰
5. 맺음말

국문초록

‘동화’, ‘고래동화’, ‘옛이야기’ 등으로도 호칭되는 ‘전래동화(傳來童話)’는 고전서사 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재화된 근대 서사문학 텍스트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근대 시기 출판된 한국 전래동화집의 출판과 문예적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론에서는 첫째, 근대 전래동화집의 출판과정, 둘째, 근대 전래동화집의 문예적 성격, 셋째, 인물과 주제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첫째, 근대 전래동화집의 출판과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가 1917년에 출판한 『新日本教育昔噺』, 다나카 우

* 이 논문은 2017년 6월 17일 ,한국문학회 40주년 기획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용인대학교

메키치(田中梅吉)가 1924년 출판한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가 1926년 출판한 『조선동화집』은 일본어로 출판된 동화집이다. 한국 전래동화집의 시작은 이들 일본인 연구자들이 주도하였다. 이를 이어 사범학교 교사이자 한글 연구자인 심의린(沈宜麟)이 한글교육의 일환으로 1926년 『조선동화대집』을 출간하였고, 동화작가 박영만(朴永晩)은 1940년 『조선전래동화집』을 출간하였다.

둘째, 근대 시기에 출판된 다섯 편의 전래동화집을 대상으로 문예적 성격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카기 도시오는 한국과 일본의 동화가 유사하면서도 차이나는 지점이 있음을 흥미롭게 여겨 작품을 선정하였고, 재미있는 소담을 많이 수록하여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나카 우메키치는 교훈적인 내용의 동화를 주로 선집, 재화하였다. 『조선동화집』은 우리 전래동화 형성과 전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나카무라 료헤이는 일본어로 된 선행 작품집들을 편집하여 일종의 전래동화 교합본을 출판하였는데, 작품 구성과 문예적 성격은 안이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지혜와 꾀를 강조한 작품들을 많이 선집하였다. 박영만은 자신이 현지 채록한 설화를 제재로 하여 다양한 캐릭터와 주제, 지역성을 표현하였고, 문장 표현과 구성 면에서 세련된 동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셋째, 근대 전래동화집에서 공통되며 주목되는 인물상은 바보, 의좋은 형제, 욕심 많은 형과 착한 동생, 탐욕스런 중 형상 등이다. 꾀 많은 아이, 외쪽이, 효자, 혹부리 영감, 나무꾼, 흥부와 놀부, 트릭스터 형상도 자주 등장하였다. 대표적 동물상은 호랑이, 토끼이며, 이외에도 거북이, 여우, 두꺼비, 사슴, 까투리, 원숭이, 개 등이 있다. 대표적 '신격'은 '도깨비'이며, 그 다음으로 용왕, 선녀, 신선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주제를 고찰한 결과, 일본인 편자들은 형제 우애, 효성, 정직, 근면을 좀 더 많이 주제로 내세웠고, 한국인 편자들은 같은 주제를 그리면서도

지혜와 꾀, 분별력, 재치, 용기를 좀 더 많이 내세웠다.

주제어 : 『조선동화집』, 『조선동화대집』, 『조선전래동화집』,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 다나카 우메키치(田中梅吉),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 심의린, 박영만, 호랑이, 도깨비

## 1. 연구의 시각

한국에서 '근대'라 함은 1895년 개항 시기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동화', '고래동화', '옛이야기' 등으로도 호칭되는 '전래동화(傳來童話)'는 고전서사 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재화된 근대 서사문학 텍스트를 일컫는 용어이다.

필자가 근대 시기의 전래동화집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신화, 전설, 민담, 야담, 고소설' 등 중세시기에 전래하던 고전서사 장르가 구체적인 편집과 출판 행위를 통해 전래동화의 목록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전래동화집이 이전의 고전서사 작품과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특징은 첫째, 작가나 연구자가 주체가 되어 전래하던 수많은 고전서사 작품 가운데 특정한 소수의 작품을 선별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 점에서 전래동화집은 전래동화 '선집'의 개념에 가깝다. 둘째, 전래하던 고전서사 작품들이 동화로 선별・개작되면서 단어나 문장 단위, 주제, 내용 등이 당대적 관점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근대 시기에 출현한 전래동화란 장르는 같은 제목이라 하더라도 중세 시기의 고전서사 작품과 구별되어야 하고, 그것에는 중세적 속성과 근대 전환기의 세계관 및 문예적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전래동화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오타케 기요미(大竹聖美)[1], 김환희[2], 권혁래[3], 김광식[4],

김경희[5] 등은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 작가가 편찬한 일본어 한국동화집과, 심의린, 박영만 등이 편찬한 한글 동화집을 발굴 및 번역하고 근대문학으로서의 성취를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일본어로 된 조선동화집 출판 및 연구성과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를 포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근대 시기 한국 전래동화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일본 동화 및 연구자들에 대해 그들이 동화를 식민지 통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사를 살펴보면 일본 동화 및 일본인 연구자의 작업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도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작업이 한국 전래동화의 탄생과 출판에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 때문이다.

근대 한국의 전래동화 형성과정 및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려면, 근대 일본과 한국 양국 동화의 관계, 한국 내 일본어로 출판된 동화집과 한국

---

1) 오타케 기요미(大竹聖美), 「1920年代 日本의 兒童叢書와 「朝鮮童話集」」, 『동화와 번역』 2,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1;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와 근대 한국」, 『한국아동문학연구』 15,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2) 김환희, 「옛이야기 전승과 언어 제국주의 : 강제된 일본어 교육이 <나무꾼과 선녀> 전승에 미친 영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옛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2008.

3) 권혁래, 「조선총독부 편 『조선동화집』(1924)의 성격과 의의」, 『동화와번역』 5,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3; 「옛이야기, 동화로 쓰기와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1940): 식민지 시기 3대 전래동화집 <조선전래동화집>과 작가 박영만에 대하여」, 『동화와번역』 10,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5; 「근대초기 설화・고전소설집 『朝鮮物語集』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학』 64, 한국언어문학회, 2008;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학사연구』 39, 민족문학사학회, 2009.

4) 김광식, 「우스다 잔운(薄田斬雲)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관한 연구」, 『동화와 번역』 20, 건국대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0; 「손진태의 비교설화론 고찰-신자료 발굴과 저작목록을 중심으로」, 『근대서지』 5호, 근대서지학회, 2012; 김광식・이시준,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의 조선민간전승 <조선동화집> 고찰」, 『일본연구』 55,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3.

5) 김경희,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16.

어로 출판된 동화집의 관계, 이 두 관계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필자의 관심 사항은 후자의 관계이다. 그간 근대 한국의 전래동화 출판 과정에 대해서는 최남선, 방정환 등의 신문・잡지를 통한 고래동화 모집 활동, 심의린의 동화 구연, 박영만의 동화 채록 작업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규명되었다. 일본어로 출판된 조선 동화집에 대해서는 필자의 초기 연구와 김광식의 일련의 연구에 의해 구체적인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어 동화집과 한국어 동화집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고, 세밀하게 고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다음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첫째, 근대 한국 전래동화집의 출판과정을 간략히 고찰할 것이다. 둘째, 근대 시기에 출판된 다섯 편의 전래동화집을 대상으로 근대 전래동화의 문예적 성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셋째, 근대 전래동화집에 그려진 인물 및 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 2. 근대 한국 전래동화집의 출판

오랜 세월 동안 구비전승되어 오던 조선의 설화는 19세기 말 외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채록·기록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작가 가린(N.G. Garin)의 『조선설화』(1898)[6], 일본인 기자 출신의 우스다 잔운(薄田斬雲)의 『朝鮮叢話』(1908)[7],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朝鮮物語集』(1910),

6) 가린의 『조선설화』의 번역과 연구논문은 다음의 논저를 참조할 것. 안상훈 옮김, 『조선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 40-1, 한국민속학회, 2008; 강재철, 「N.G. 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 『한국설화문학의 탐구』, 단국대 출판부, 2009.

7) 김광식, 「우스다 잔운(薄田斬雲)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대한 연구」, 『동화와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 저 『조선 교육 옛이야기[新日本教育昔噺]』(1917), 미와 다마키(三輪環)의 『傳說の朝鮮』(1919), 조선총독부의 『朝鮮童話集』(1924)[8],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 『朝鮮童話集』(1926) 등이 그 결과물이다. 러시아, 영미권의 연구자들이 남긴 자료집들은 민담을 비롯하여 문헌설화나 전설, 신화, 고소설, 야담 등을 저본으로 한 작품들이 혼합되어 있고, 장르적 성격으로 보면 대개 설화집에 가깝다. 이것이 (전래)동화라는 인식 아래 동화로 호칭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朝鮮童話集』(1924)에서부터다.

조선인 연구자가 직접 조선의 설화를 채록하여 동화로 변환시킨 것은 최남선, 방정환 등이 1910년대~20년대 초에 걸쳐 신문·잡지를 통해서 고래동화를 발굴한 작업이 시작이었다. 뒤를 이어 1926년 한글 연구자이자 사범학교 교사인 심의린이 『朝鮮童話大集』(1926), 『실연동화』(1928)를 출판하였고, 1940년 박영만은 『朝鮮傳來童話集』을 출판하였다. 이러한 자료집들로부터 근대 전래동화집의 레파토리와 내용, 정체성을 고찰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필지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해방 이전의 주요 전래동화집은 다음과 같다.

| 연번 | 제 목 | 저자 /편찬자 | 출판사 | 출판 시기 | 수록 편수 | 비고 |
|---|---|---|---|---|---|---|
| 1 | 『新日本教育昔噺』 (조선교육옛이야기) | 高木敏雄 | 東京:敬文館 | 1917 | 52편 | 일본어 (영인 출간) |
| 2 | 『朝鮮童話集』 | 朝鮮總督府 (田中梅吉) | 京城:大阪屋号 書店 | 1924 | 25편 | 일본어 (번역 출간) |
| 3 | 『朝鮮童話集』 | 中村亮平 | 東京:富山房 | 1926 | 43편 | 일본어 (번역 출간) |
| 4 | 『朝鮮童話大集』 | 심의린 | 漢城圖書株式 會社 | 1926 | 표제66편 (총83편) | 한글 (현대어역 출간) |
| 5 | 『朝鮮傳來童話集』 | 박영만 | 學藝社 | 1940 | 75편 | 한글 (현대어역 출간) |

번역』20,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8) 권혁래 역저, 『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보고사, 2013.

1~3번은 일본인 연구자들이 편찬한 일본어 동화집이다. 4,5번은 한국인 연구자들이 편찬한 한글 동화집이다. 한국의 전래동화집의 편찬은 시작 지점에서 일본인들이 주도하였고, 한국인들의 편찬 작업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인 연구자들은 일본의 설화 및 동화에 대한 인식 및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래동화를 편찬・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 동화집에 대해 지나치게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관점이나 식민통치와 관련하여 문화정책적 관점으로 평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관점이나 선입견을 갖기 십상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연구자가 편찬한 동화집을 민족 주체적 관점을 과도하게 내세워 평가하다 보면 작품의 실상을 간과하는 측면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연구자들 중에서 한국 근대 전래동화집의 문예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연구사를 반성적으로 평가하려는 과정의 자연스런 산물로 여겨진다.

전래동화집은 전래동화 '전집' 또는 선집이다. 엄밀히 말하면, '전집'보다는 '선집'의 개념에 가깝다. 수많은 고전서사 작품이 존재하였기에 애초부터 전집의 개념은 불가능하였다. 동화집의 필자나 편자들은 전승되어 오던 수많은 고전서사 작품들 가운데 당대 독자들에게 적합한 작품들을 임의로 선별하고, 이를 자신들의 미적 감각에 맞춰 문장을 다시쓰기하여 동화집을 출간하였다. 그러므로 출판된 동화집마다 목록이 다르고 문장의 성격도 다양하다.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1876-1922)는 일본의 저명한 신화학자이자 비교문학 연구자로,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신화 및 설화를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활발하게 연구하였다. 그는 문헌설화와 전설, 다카하시 도루, 시미즈 효조 등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52편의 한국 전래동화를 선집하여 1917년 『新日本教育昔噺』을 출판하였다.

다나카 우메키치(田中梅吉:1883-1975)는 독일 동화 연구자로서, 조선

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에서 1910년대에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수많은 구비문학 자료 중에서 25편을 선정하여 1924년 『조선동화집』을 출판하였다. 다나카는 가장 적은 작품을 선집하여 한국 전래동화의 전형성을 제시하였다.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1887-1947)는 미술 연구자로서 1925년에 경북사범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조선의 동화를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1926년에 『조선동화집』을 출판하였다. 43편 중 21편은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 수록 작품을 개작한 것이다.

심의린(沈宜麟:1894-1951)은 사범학교 교사이자 한글 연구자로서, 조선 아동들의 한글 교육의 일환으로 1926년 『조선동화대집』을 출간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 수록 작품들을 적지 않게 수록하면서도 자신이 조사한 민담 작품들을 동화화하며 전래동화의 스펙트럼을 넓히려 하였다. 표제작품 66편, 총83편의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하였다.

박영만(朴永晩:1914-1981)은 1920년대부터 10여 년간 자신이 수집한 작품들을 동화화하여 1940년 『조선전래동화집』을 출간하였다. 각 지역의 전설과 민담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내용을 선보이고, 잘 정제된 문장으로 75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상 다섯 권의 전래동화집은 각 동화집마다 실린 작품 수나 목록도 일정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먼저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위 작품집들의 수록 작품 목록과 문예적 성격을 간략히 고찰하는 방식으로 택하고자 한다. 등장인물의 제재 면에서는 조선적인 것의 범주를 인물, 동물, 신격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주제 또는 교훈적 측면을 파악할 것이다. 문장 표현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술할 것이다.

## 3. 근대 한국 전래동화집의 수록 작품 목록과 문예적 성격

### 1) 『조선교육옛이야기(新日本教育昔噺)』(1917)

| 연번 | 원 제목 | 번역 | 연번 | 원 제목 | 번역 |
|---|---|---|---|---|---|
| 1 | 石地藏のくしやみ | 지장보살 석불의 재채기 | 27 | 子供の智慧 | 아이의 지혜 |
| 2 | 三年忌 | 삼년 상 | 28 | 盗賊と番頭 | 도둑과 점장 |
| 3 | 馬鹿な金満家 | 어리석은 부자 | 29 | 和尚と小僧 | 스님과 동자승 |
| 4 | 和尚の雀踊 | 스님의 춤 | 30 | 借金取 | 빚쟁이 |
| 5 | 兎の生肝 | 토끼와 거북이 | 31 | 和尚の敵討 | 스님의 복수 |
| 6 | 大工と植木室 | 목수와 정원사 | 32 | 馬鹿婿 | 바보 사위 |
| 7 | 馬一匹に騎手三人 | 말 한 마리와 세 명의 기수 | 33 | 成金術 | 자린고비 이야기 |
| 8 | 麻仁粕 | 깻묵. 기름찌꺼기 | 34 | 新松山鏡 | 新松山鏡(新 거울을 처음 본 이야기) |
| 9 | 盲目の龍宮見物 | 장님의 용궁구경 | 35 | 三年坂 | 삼년고개 |
| 10 | 嫁の改心 | 며느리의 반성 | 36 | 獨脚伊 | 도깨비 |
| 11 | 新浦島 | 新 우라시마(신선이 사는 봉우리) | 37 | 狐の裁判 | 여우의 재판 |
| 12 | 家鴨の勘定 | 오리 세기 | 38 | 婚礼の夜 | 혼례 첫날밤 |
| 13 | 坊主の河渡 | 스님의 강 건너기 | 39 | 書生の惡戯 | 서생의 장님 놀리기 |
| 14 | 亀の年齢 | 거북이 나이 | 40 | 新舌切雀 | 新 혀 짤린 참새 (흥부놀부) |
| 15 | 猫鳥の禁厭 | 고양이새와 부적 | 41 | 嘘百円 | 거짓말 100엔 |
| 16 | 瓜の種子 | 오이씨 | 42 | 打出小槌 | 도깨비방망이 |
| 17 | 瘤取 | 혹부리 영감 | 43 | 乞食の大將 | 거지대장 일지매 |
| 18 | 釜の家 | 솥집 | 44 | 虎と喇叭手 | 호랑이와 나팔수 |
| 19 | 牡馬の子 | 숫말의 망아지 | 45 | 尼の踊 | 비구니의 춤 |
| 20 | 驢馬の耳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46 | 婿取 | 사위 고르기 |
| 21 | 三人伴侶 | 세 명의 동반자 | 47 | 三万円の鼻 | 3만엔 코 |
| 22 | 驢馬の卵 | 당나귀 알 | 48 | 驢馬と百姓親子 | 당나귀와 농부 부자 |
| 23 | 嘘の賭 | 거짓 도박 | 49 | 土龍の嫁入 | 두더지 신부 들이기 |
| 24 | 牛に成った大臣の子 | 소가 된 재상의 아들 | 50 | 倅の親爺 | 아들의 아버지 |
| 25 | 死んだ鶏 | 죽은 닭 | 51 | 明日 | 내일 |
| 26 | 人參 | 인삼 | 52 | 化物屋敷 | 귀신의 집 |

이 책의 저자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1876-1922)는 근대 일본신화, 전설, 민담의 기초를 이룬 저명한 신화학자로, 1876년 구마모토 현에서 태어나 동경제대 독문학과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졸업 후 동경고등사범학교 등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며 설화연구에 전념하다가 문부성 재외연

구원으로 선정되었으나, 1922년 독일 출발을 앞두고 돌연 병사했다. 다카기는 새로운 학문인 일본 민속학을 개척하였고, 1910년까지는 신화학을 중심으로 했으나, 1910년대 이후로는 한일 비교 설화 등 전설, 민담 연구로 학문영역을 넓혔다. 1912년에는 「일한공통의 민간설화」를 발표하며 한일 비교설화 연구를 본격화했다. 그는 1910년대 초에 조선설화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자료를 채록하여 요리우리 신문에 31편을 연재하였다(1911.1.5-1916.12.28.). 이 연재 기사를 바탕으로 다카기의 학문적 역량을 발휘한 성과가 1917년 東京 敬文館에서 간행한 『新日本教育昔噺』이다.

필자는 제목의 '昔噺'(무카시바나시)을 '옛이야기'로 번역하였는데, 넓게 보면 전래동화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책의 수록작품들은 『용재총화』, 『삼국사기』 등의 문헌설화,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물어집』 등의 이야기를 저본으로 하였지만, 개작된 양상을 보면 설화보다는 '(전래)동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총52화의 한국 전래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다카기는 서문에서 이 책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조선 교육 옛이야기[新日本教育昔噺][9]입니다. 옛날 일본의 오래된 어디에나 있는, 누구나 이야기하고 누구든 들어본 옛이야기와는 아주 다른, 바다 건너 있는 '새로운 일본'에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고르고 고른 것이 50편이 넘는답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랍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이야기하면 1년분이고, 하룻밤에 한 편씩 해도 얼추 2개월 분량이 되니, 어린이들은 즐거워할 것이고, 어른들은 이야깃거리로 삼을 만합니다. 읽어서 들려주고, 읽게 해서 듣고 웃으면, 복이 오고 가난의 신이 쫓겨나서 집안은 안전해지고 병도, 재앙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재밌는 교육 옛이야기를 부디 사양치 마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필자 번역, 원문 생략)

9) '新日本'은 '조선'을 뜻하는 바,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선'으로, '昔噺'은 '옛이야기'로 번역하였다.

위 서문에서 '신일본'이라 함은 1910년 일본에 병합된 '조선'을 일컫는 말이다. 식민사관의 시선이 느껴지는 제목이지만, 다카기의 의식과 책 내용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는 식민지 조선을 '새로운 일본(新しい日本)'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옛이야기가 일본의 옛이야기와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은 아카데미즘에 충실했던 다카기의 설화 연구가 같은 내용의 설화를 들어 식민지 현실을 추인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위험성을 지닌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10] 옛이야기를 엄격하게 선별하였다는 편자의 고민이 강조되고 있는 한편, 주목할 점은 '교육 옛이야기'의 제목과 걸맞게 조선의 동화를 유익 혹은 교육적이라고 한 점이다. 이는 다카기가 조선 동화 및 그것에 담긴 주제의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집은 최초의 전래동화집으로 꼽혀 온 조선총독부의 『朝鮮童話集』(1924년)보다 선행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출간된 한국 전래동화집이다. 이 작품은 아직까지 번역이나 본격적 연구가 이뤄진 상태가 아니라 작품 내용을 세밀하게 고찰하지 못하였다. 필자가 대략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교육옛이야기』의 유형[11]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소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전체 52편 중 소담이 39편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신이담 9편, 동물담 2편, 일반담 2편 순으로 구성되었다. 소담은 이중 '바보' 이야기가 <삼년 상>, <어리석은 부자>, <목수와 정원사>, <장님의 용궁 구경>, <오리 세기> 등 19편이나 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바보 이야기는 주로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자를 비웃고 지혜와 꾀를 강조하며 해학의 미학을 보여준다. 신이담에는 지장보

10) 김광식・이시준, 「다카기 도시오와 신일본교육구전설화집」, 다카기 도시오 저,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편, 『신일본교육구전설화집』, 제이앤씨, 2014, 5쪽.

11) 전래동화의 유형은 조희웅의 설화분류법에 의거하여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담, 형식담의 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17-26쪽.)

살 석불, 신선, 도깨비, 용왕 등 신격이 등장하는데, 이 중 도깨비 이야기는 네 편이나 된다. 동물담에는 호랑이, 거북이, 토끼, 여우, 두더지 등이 등장한다.

둘째, 책 제목에서 '교육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이야기의 표면에 작가나 교훈적 내용을 부각시킨 것은 아니었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작가는 소담이나 일반담을 통해 고지식함을 비웃고 지혜 및 꾀를 강조하였고, 정직, 근면, 효행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또한 부정적인 성격으로는 도박이나 술 취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셋째, 다카기는 민담에서 15편, 문헌설화(『용재총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서 13편, 다카하시 도루의 『朝鮮物語集』(1910)나 시미즈 효조의 「조선이야기의 연구」(『朝鮮彙報』 투고, 1916)에서 12편 등 선행한 문헌에서 제재를 구하여 스토리와 인물의 성격을 다듬었고[12], 대화체와 묘사가 강화된 문장을 선보였다.

넷째, 다카기 도시오는 작품을 선정할 때 조선 동화에 일본과 유사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흥미롭게 여겨 그러한 작품들을 선집하고 '新浦島', '新松山鏡', '新舌切雀' 등으로 '新+일본 동화 명'의 방식으로 작명하였다. <두더지 신부 들이기>도 일본 동화와 내용이 흡사하다. 다카기는 이 동화집을 출판하면서 한일 간에 내용과 주제가 유사한 작품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과제로 남긴 셈이다.

전체적으로 다카기 도시오는 한국과 일본의 동화가 유사하면서도 차이나는 지점이 있음을 흥미롭게 여겨 작품을 선정하였고, 재미있는 소담을 많이 수록하여 독자들이 이야기를 즐기는 가운데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카기 도시오의 동화선집을 보면서 일본과 한국의 전래동화 간에 유사한 작품은 무엇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12) 김광식・이시준, 앞의 논문, 8-10쪽.

된다. 한국과 일본 간에 유사한 전래동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온한 일선동조론의 시각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준다. 한일 전래동화에 비슷한 화형(話型)이 존재한다는 것은 양국이 인접 국가이며 영향 관계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대 시기에는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던 듯하다. 현재적으로는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유사 작품을 파악하고, 내용과 주제, 캐릭터, 상사・상이점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조선총독부(田中梅吉) 편, 『朝鮮童話集』(1924)

| 연번 | 제목 | 연번 | 제목 |
|---|---|---|---|
| 1 | 물속의 구슬(水中の珠) | 14 | 종을 친 까치(鵲の鐘つき) |
| 2 | 원숭이의 재판(猿の裁判) | 15 | 세 개의 구슬(三つの珠) |
| 3 | 혹 떼이기・혹 받기(瘤とられ・瘤もらひ) | 16 | 은혜 모르는 호랑이(恩知らずの虎) |
| 4 | 술이 싫은 토끼와 거북이와 두꺼비(酒きらひの兎と龜と蟾) | 17 | 어머니를 버린 남자(親を捨てる男) |
| 5 | 한 겨울의 딸기(寒中の覆盆子) | 18 | 개구리와 여우의 지혜 겨루기(蛙と狐の智慧くらべ) |
| 6 | 검은 구슬과 붉은 구슬(黑い玉と黃い玉) | 19 | 금방망이 은방망이(金棒銀棒) |
| 7 | 교활한 토끼(狡い兎) | 20 | 불쌍한 아이(哀れな兒) |
| 8 | 말하는 거북이(物いふ龜) | 21 | 겁쟁이 호랑이(臆病な虎) |
| 9 | 선녀의 날개옷(天女の羽衣) | 22 | 세 개의 보물(三つの寶) |
| 10 | 바보 점쟁이(馬鹿の物しり) | 23 | 큰 게 퇴치(大蟹退治) |
| 11 | 심부름꾼 거북이(龜のお使) | 24 | 천벌 받은 호랑이(虎の天罰) |
| 12 | 은혜 갚은 두꺼비(蟾の報恩) | 25 | 놀부와 흥부(怒夫と興夫) |
| 13 | 이야기 좋아하는 장님(物好きな盲者) | | |

『조선동화집』은 1924년 조선총독부가 출판한 한국 최초의 전래동화집인데, 그 실질적 편자는 다나카 우메키치(田中梅吉)임이 김광식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13] 그러므로 편자를 조선총독부가 아닌, 다나카로 명

13) 金廣植, 「近代における朝鮮說話集の刊行とその硏究-田中梅吉の硏究を手がかりにして」, 徐禎完・增尾伸一郎 外, 『植民地朝鮮と帝國日本-民族・都市・文化』, 東京; 勉誠出版, 2010, 176-177쪽.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나카는 1916-1921년까지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근무하면서 관청 및 학교를 매개로 하여 조선 각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그 작품들은 현지에서 채록한 민담 및 전설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14] 다나카는 이 채록 자료들을 동화의 방식으로 개작하였는데,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동화집』 25편의 작품들은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전설과 민담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작품만을 선집하여 동화화한 것이다. 문장은 전형적인 민담과는 거리가 있는, 작가가 적지 않게 개입하여 고쳐 쓴 동화의 형태를 보인다. 서두와 결말부에 나타나는 화자의 동화적인 말투, 서술자의 빈번한 개입, 정리된 문어체 표현 등이 그 증거이다.

둘째, 『조선동화집』 수록 작품 총 25편 중, 신이담은 14편, 동물담은 6편으로, 둘을 합친 것의 비중이 80%나 될 만큼 높으며, 소담과 일반담은 각각 3편, 2편으로 비중이 낮다. 신이담에서는 원 설화가 갖고 있는 환상성 및 신이성을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다. 의인화된 원숭이나 호랑이, 토끼, 사슴을 비롯하여 말을 하는 거북이와 사람을 도와주는 두꺼비, 인간으로 변신하는 큰 게를 물리치는 돼지와 곰 등의 경우가 그러하고, 장승, 신선과 선녀, 천도(天桃), 도깨비, 용왕 및 용궁, 강남 제비왕국 등 초월적 존재 및 세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그러하다.

셋째, 대체로 인물들은 평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인물 간에 선악의 대립적 구도가 명확하다. 처음부터 등장인물들은 악인과 선인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며, 그들은 대개 나면서부터 악하거나 착한 존재로 그려진다. 대체로 악인은 상전이나 형, 나이 든 윗사람으로, 선인은 아랫사람이나 동생, 어린 사람으로 그려진다.

---

14) '조선민속 자료 총서' 1권인 『朝鮮の謎(조선의 수수께끼)』(조선총독부 편, 1919)의 '서문'에 보면, "본서는 본 총독부가 각 도에 명해서 채집・보고 받은 조선의 수수께끼에 관한 자료를 모아 학무국 편집과에서 정리하고 인쇄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동화집』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료를 모집하였으리라 추정한다.

넷째, 다나카 우메키치는 동화의 교훈적 측면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을 분명하게 대비시키며 윤리적 덕목을 부각시켰는데, 특히 “효심, 형제 간의 우애 및 화해, 친구간의 우정, 지혜와 꾀, 자비, 성실, 착한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유순함, 친절함, 진실한 삶” 등의 덕목을 강조하였다. 이와 대비 되게 “욕심, 교활함, 무자비함, 악함, 게으름, 이기적인 마음, 사나움” 등의 덕목은 매우 부정적으로 그렸다. 윤리적 덕목의 개수가 다른 어떤 동화집보다 훨씬 많고, 그 교육적·계몽적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섯째, 다나카는 골계미 및 해학적 요소를 조선동화의 미학적 특징으로 인식하였으면서도 막상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한 점도 적지 않았다. <원숭이의 재판>, <술을 싫어하는 토끼와 거북이와 두꺼비>, <한 겨울의 산딸기>, <교활한 토끼>, <바보 점쟁이>, <심부름꾼 거북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장님>, <개구리와 여우의 지혜 겨루기>, <겁쟁이 호랑이>, <놀부와 흥부> 등에서 다나카는 한국 동화의 골계미를 어중간하게 표현하였다.

『조선동화집』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담당자들과 일본의 동화연구자 다나카 우메키치가 공동작업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조사한 조선의 민담을 취사선택하여 ‘동화’라는 근대 아동문학 장르를 표방하며 출판한 한국 최초의 전래동화집이다. 『조선동화집』은 우리 전래동화 형성과 전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20년대 이후 일본인들이 펴낸 조선전래동화집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작품들은 식민지 시기의 학교교육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고,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그 목록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3)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 편, 『朝鮮童話集』(1926)

| 연번 | 제목 | 연번 | 제목 |
|---|---|---|---|
| 1 | 호랑이와 곶감(虎と干柿) | 23 | 오작교(鵲のかけ橋) |
| 2 | 물속의 구슬(水中の珠) | 24 | 호랑이와 거북이(虎と龜) |
| 3 |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恩知らずの虎) | 25 | 종 치는 까치(鐘つき鵲) |
| 4 | 만수 이야기(萬壽の話) | 26 | 맹인과 요마(盲者と妖魔) |
| 5 | 심부름꾼 거북이(龜のお使) | 27 | 잉어 입에서 나온 구슬(鯉の口から出た玉) |
| 6 | 원숭이의 재판(お猿さんの裁判) | 28 | 어느 농부와 그 아내(或お百姓さんとその妻) |
| 7 | 점 잘 치는 돌이(占上手の石さん) | 29 | 거짓말 겨루기(嘘くらべ) |
| 8 | 선녀와 나무꾼(若者と羽衣) | 30 | 검은 옥과 누런 옥(黑い玉と黃色い玉) |
| 9 | 교활한 토끼(狡い兎) | 31 | 과거 급제한 두 노인(科擧に及第した二人の老人) |
| 10 | 혹부리 영감(瘤取り爺さん) | 32 | 한 겨울의 딸기(寒中のいちご) |
| 11 | 자신 없는 호랑이(自信のない虎) | 33 | 풍수 선생의 세 아들(風水先生の三人兄弟) |
| 12 | 아저씨와 거울(小父さんと鏡) | 34 | 세 개의 구슬(三つの珠) |
| 13 | 세 개의 병(三つの瓶) | 35 | 가난한 남자의 행복(貧しい男の幸福) |
| 14 | 말하는 거북이(龜の言葉) | 36 | 두꺼비의 보은(蟾蜍のご恩返し) |
| 15 | 여우와 개구리의 지혜 겨루기(狐と蛙の智慧くらべ) | 37 | 쌍둥이 열 번(双兒を十度) |
| 16 | 세 개의 보물(三つの寶) | 38 | 어머니를 버린 남자(親捨男) |
| 17 | 호랑이와 젊은이(虎と若者) | 39 | 맹인 아저씨(盲目の小父さん) |
| 18 | 두 형제와 호랑이(二人の兄弟と虎) | 40 | 큰 게 퇴치(大蟹退治) |
| 19 | 두 형제와 도깨비 집(二人の兄弟と鬼屋敷) | 41 | 실수한 신랑(しくじりお聟さん) |
| 20 | 곰에게 잡힌 나무꾼(熊にさらはれて行つた木樵) | 42 | 낯선 젊은이(見知らぬ若者) |
| 21 | 토끼와 거북이와 두꺼비(兎と龜と蟾蜍) | 43 | 이상한 절구(不思議な臼) |
| 22 | 복숭아 열매(ももの實) | | |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1887-1947)는 일본 나가노 현 출신으로 미술연구자이다. 나카무라는 1923년 12월 9일 울산보통학교 교사로 조선에 부임해, 1925년 3월 31일부터는 경북 공립 사범학교로 옮겼으며, 1926년 2월에 『조선동화집』을 간행하고, 같은 해 8월 31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5] 나카무라의 동화집은 도쿄에서 발행되었으며, 558

15) 今井信雄, 「新しき村余錄(中)-中村亮平伝-」, 『成城文藝』 52. 1968, 36쪽; 김광식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위 목록에 있는 43편의 동화뿐 아니라, <심청전>과 <흥부전>의 고소설 두 편, 17편에 이르는 전설, 총62편에 이르는 작품을 수록하였다. 이 동화집은 일본 동경에서 출판되어 6쇄를 찍었을 뿐 아니라, 양질의 종이에 화려한 장정과 고급 삽화 등으로 인해 일본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카무라 『조선동화집』의 문예적 성격 및 수록 작품 43편의 특징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카무라의 『조선동화집』은 주로 1926년까지 일본어로 간행되었던 설화, 동화집의 수록 작품들을 편집한 선집이다. 이 점은 『조선동화집』(1926)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짓는 요소다. 조선어를 할 줄 몰랐던 나카무라가 조선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43편의 동화를 비롯해 총62편의 설화를 수집하여 방대한 동화집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범학생을 통한 수집과 함께, 일본어로 출간된 선행 설화집, 동화집, 조선총독부 교과서를 참고했기 때문이었다.[16] 김광식은 나카무라가 다카하시의 『조선 이야기집과 속담』(1910), 미와의 『전설의 조선』(1919), 야마자키의 『조선의 기담과 전설』(1920),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1924), 제2기 일본어 교과서 『국어독본』(1923-4) 등에서 많은 자료를 취해, 이를 바탕으로 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7] 확인해 본 결과, 조선총독부의 동화집에서는 총25편 중 21편을 개작하여 수록한 것을 알 수 있었다.[18] 나카무라의 동화집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은 <12. 세 개의 항아리>, <27. 잉어 입에서 나온 구슬>, <28. 어느 농부와 그 아내>, <41. 한번 실패한 신랑>, <43. 신기한 절구> 5편에 불과하

---

・이시준,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와 『조선동화집』 고찰-선행 설화집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57, 한국일본어문학회, 2013, 244쪽에서 재인용.

16) 김광식・이시준, 위의 논문, 257-258쪽.

17) 같은 논문, 247쪽.

18) 위 나카무라 목록 중, 1,2,3,5,6,7,8.9,10,11,14,15,16,25,27,30,32,34,36,38,40번, 총21편이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동화집』의 수록 작품을 조금씩 고쳐 수록한 것이다.

다.[19] 동화집에는 특정 지역과 관련 있는 전설을 저본으로 한 작품이 여러 편 발견된다. 별도로 수록된 고소설과 전설까지 포함하면, 나카무라의 동화집은 일종의 교합본이라 할 수 있는데, 서사 면에서 중복되는 작품도 여러 편 있고, 특정 소재(호랑이)나 주제(효, 형제우애)에 편중된 점을 보면 성공적인 교합본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둘째, 나카무라는 아름답고 기분 좋으며, 조선다운 이야기를 선집하고자 하였다. 나카무라는 『조선동화집』의 편찬에 대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저는 조선에 건너온 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조선다운 이야기를 골라서 제 나름대로 엮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엮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동포와의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중에는 내지의 이야기들과 같거나 매우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어딘가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20]

위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나카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조선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동화를 흥미롭게 읽고, 그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아름답고, 유쾌하며, 조선다운 이야기를 골라 편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동화집은 조선과 일본이 친밀한 관계를 쌓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나카무라는 아름답고, 유쾌하며, 조선다운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김영남, 손태도・전신재, 권태효, 박미경 등의 연구자들은 동화집 수록 작품들이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작품이 많으며, 일선동조론에 기반하여 선집되었다고 비판적으로 논평하였다.

---

19) 위의 논문, 251쪽.

20) 나카무라 료헤이 저, 김영주・이시준 옮김, 『완역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 박문사, 2016, 11쪽.

셋째, 등장인물 중에서 인간은 어린이, 의좋은 형제, 불쌍한 머슴, 나무꾼, 혹부리 영감, 바보 가족, 바보 형과 착한 동생, 점치는 돌이, 소 도둑, 진순이 남매, 오누이, 효자, 장님, 풍수가, 가난한 남자 등, 주로 서민층이자 가난한 인물들이 그려졌다. '의좋은 형제'는 유사한 이야기에서 세 번이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동물 캐릭터는 호랑이, 거북이, 원숭이, 개, 여우, 사슴, 곰, 토끼와 거북이와 두꺼비, 까치, 잉어, 큰 게와 곰과 돼지 등 꽤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호랑이는 일곱 편의 작품에 등장하였다. 호랑이의 형상은 어리석은 호랑이, 은혜 모르는 호랑이, 착하고 인자한 호랑이, 자신 없는 호랑이, 잔인한 호랑이 등 다양한 성격으로 그려졌는데, 조선 전래동화에서 가장 특징적 동물 캐릭터로 호랑이를 꼽은 점을 알 수 있다.

신격으로는 선녀, 천녀, 도깨비, 산사나이, 신, 요마, 신령, 견우직녀 등 비교적 많은 종류가 등장한다. 특이한 것은 '天女', '神', '妖魔', '산사나이(山男)'라는 신의 이름이다. 한국에는 이러한 이름의 신이 없다. '신'이라는 일반 명사는 어색하고, '천녀'는 선녀의 일본식 명칭이며, '요마'라는 이름도 한국에는 없는 괴물 호칭이다. 마을에 내려와 재물을 훔치고 여자를 납치해가는 사람 모습을 한 괴물을 '산사나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한국에는 없는 일본의 신 개념이다. 당시 조선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어색하거나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이 일본어 독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종의 번역·번안 용어로 이해할 수도 있다.

넷째, 주제 면에서 볼 때 『조선동화집』은 중세적 윤리관 및 수동적 인생관이 특징적이다. 무엇보다 부자 간의 효와 형제우애 등의 윤리적 주제, 운수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이 여러 편 나온다. 특히, 어린 형제들이 귀한 구슬을 발견하고는 서로 양보하는 이야기는 세 편이나 중복되어 있다. 한편으론 게으른 형과 성실하고 착한 동생으로 구성된 형제 이야기는 욕심과 게으른 품성을 경계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찬양하였다.

풍수가 이야기도 세 편이나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는 인생에는 운수가 있으며, 이를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점을 말하였다. 전래동화집이 지니는 교육적 기능을 볼 때 나카무라의 동화집은 보수성을 띤다.

다섯째, 문장 면에서 나카무라의 동화는 선행 작품들에 비해 묘사가 부연되고, 서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점이 발견된다.

나카무라는 짧은 조선 체류 기간 동안 한국의 전래동화를 흥미롭게 인식하고 일본어로 된 선행 작품집들을 편집하여 일종의 전래동화 교합본을 기획하였다. 이것을 일본 내지에서 양질의 종이에 화려한 장정과 삽화 등을 더해 출판했다고 해서 고급 동화집이라는 평판을 얻기도 하였다. 나카무라의 『조선동화집』은 일본 아동 독자들에게 한국 동화를 보급한 공은 있겠지만, 그 작품 구성과 문예적 수준은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요소가 많다.

4) 심의린, 『조선동화대집』(1926)

| 연번 | 제목 | 연번 | 제목 | 연번 | 제목 |
|---|---|---|---|---|---|
| 1 | 은혜 모르는 호랑이 | 23 | 악독한 범 | 45 | 오리 먹고 알 먹어 |
| 2 | 멸치의 꿈 | 24 | 다람쥐의 보은 | 46 | 토끼의 지혜 |
| 3 | 청보자 | 25 | 원숭이 재판 | 47 | 말하는 남생이 |
| 4 | 독갑이 돈 | 26 | 바보 모집 (10편) | 48 | 삼인의 학동 |
| 5 | 호랑이를 잡은 도적 | 27 | 돌 둑겁이 | 49 | 염소의 환갑연회 |
| 6 | 당나귀 알 | 28 | 오성의 독갑이 제어 | 50 | 두 형의 회개 |
| 7 | 바보사위 | 29 | 반쪽 사람 | 51 | 꾀 있는 여우 |
| 8 | 개구리 신선 | 30 | 놀부와 흥부 | 52 | 떡보의 실언 |
| 9 | 금방망이 은방망위 | 31 | 노부를 내다버린 자 | 53 |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 |
| 10 | 이오성 | 32 | 토목공이와 자린고비 | 54 | 자리다툼 |
| 11 | 효자의 도음 | 33 | 호랑이 모집 (9편) | 55 | 천도 얻은 효자 |
| 12 | 네모진 보석 | 34 | 사냥꾼의 소원 | 56 | 개와 범 |
| 13 | 외쪽의 꾀 | 35 | 똑같은 재주 | 57 | 떡보의 성공 |
| 14 | 착한 아우 | 36 | 태전꾼의 꾀 | 58 | 군수와 아이 |
| 15 | 부자 되는 법 | 37 | 김득선의 후회 | 59 | 거짓말 잘하는 아이 |
| 16 | 곰과 산돼지 | 38 | 콩쥐팥쥐 | 60 | 천치신랑 |
| 17 | 오작교 | 39 | 옹기장사 | 61 | 쌍꿩의 보은 |
| 18 | 별주부 | 40 | 완고양반 | 62 | 술 나오는 구슬 |
| 19 | 두건 쓴 고양이 | 41 | 달떡 | 63 | 여우의 변화 |

| | | | | | |
|---|---|---|---|---|---|
| 20 | 유복자의효성 | 42 | 두 개의 구슬 | 64 | 세도재상과 한량 |
| 21 | 장승 해몽 | 43 | 혹 달린 노옹 | 65 | 완고학자님 |
| 22 | 소년 군수 | 44 | 문자 잘 쓰는 남자 | 66 | 두꺼비의 보은 |

심의린(沈宜麟:1894-1951)은 보통학교 교사이자 한글 연구자였다. 그는 동화의 문학성과 교육적 효용성을 인식하고, 누구보다 일찍이 민담을 발굴 정리하여 학교교육과 동화 구연활동 등을 통해 한글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선동화대집』의 표제작품은 66화이지만, <바보 모집>은 10편, <호랑이 모집>은 9편이 속해 있어 모두 합치면 83화이다. 『조선동화대집』에서 주목되는 문예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린 동화집은 다나카 우메키치의 『조선동화집』 수록 작품을 다수 재수록하면서도 다양한 민담 및 전설 작품을 수용하여 생활 정서와 서사성을 풍부하게 발현시켰다. 작품의 유형 면에서는 소담(41편)과 신이담(27편), 동물담(12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소담에서는 바보 및 고지식한 인물들이 조롱받고 풍자당하는 한편, 노인, 이오성, 외쪽이, 소년군수, 태전꾼, 어린이, 한량 등의 약자들이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재치와 꾀를 발휘하는 작품들이 많다. 신이담에서는 동물을 의인화하거나 초월적 인물을 등장시켜 탐욕을 경계하고 선행이나 형제우애를 강조하며 교훈적 요소를 첨가하였다. 신격으로는 신선, 도깨비, 용왕 등소수의 캐릭터만이 등장하였다. 동물담에서는 호랑이, 토끼, 곰, 멧돼지, 자네, 이리, 여우, 원숭이, 염소, 개, 두꺼비, 자라, 고양이, 멸치, 망둥이, 가자미 등 다양한 동물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호랑이는 조선의 가장 대표적 동물로 그려진다. 호랑이는 대체로 맹수성이 살아 있는 포악한 동물(<은혜 모르는 호랑이>, <악독한 범> 등)로 그려지지만, 어리석은 모습(<호랑이를 잡은 도적>, <꾀 있는 여우>, <개와 범> 등), 인간에게 우호적인 모습(<착한 아우>, <호랑이 모집(1)>)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토끼, 원숭이, 개 여우, 고양이 등은 지혜와 꾀를 발휘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일반담 세 편은 모두 효자를 주인

공으로 한 작품들이다.

둘째, 주제 면에서 『조선동화대집』은 많은 작품들이 정직, 근면, 우애, 효성 등의 윤리적 덕목을 드러내는 한편, 어린이의 지혜와 꾀를 강조하였다. 심의린은 어린이를 선하고 꾀 많은 약자로 그려, 선하고 꾀 많은 약자가 힘세고 나이 많은 권력자들이 횡포 부리는 험한 세상에서 분별력과 지혜, 꾀를 가지고 대처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 점은 동시대의 일본어 동화집들과 대별되는 특징이다.

셋째, 문장 표현 면에서는 과장과 열거의 방식을 통해 해학의 미학을 살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심의린은 민담을 동화화하면서 대체로 사건과 인물의 행동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한다. 하지만 <멸치의 꿈>과 같은 작품에서는 판소리의 보여주기 기법을 활용하여 호흡 긴 묘사를 선보였다.

넷째, 작품 속에 부분적으로 당대의 문물을 끌어들이면서 현재성을 표현하였다. 심의린은 몇몇 작품에서 전차, 우편국, 전보 등의 1920년대 당대의 문물을 그리면서 현재적 이야기를 전하였다. 장소와 시간의 현재성은 민담이나 다른 동화집들과 대별되는 성격이다.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은 한글로 된 최초의 전래동화집이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글로 된 전래동화집은 많지 않았는데, 이 동화집은 문학성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독자들의 호응도 커서 1937년에 4판이 발행될 정도였다. 심의린은 이 동화집을 텍스트로 하여 동화구연 운동을 활발히 하였고, 한글교육에 활용하였다. 수록 작품들 중 <호랑이와 나그네>, <호랑이와 곶감>, <토끼의 꾀>, <혹부리 영감>, <말하는 남생이>, <도깨비 방망이>, <은혜 갚은 두꺼비>, <반쪽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나무꾼과 선녀>, <은혜 모르는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고려장 이야기> 등은 해방 이후 간행된 동화집에도 지속적으로 수록되면서 한국 전래동화 레퍼토리의 근간을 마련하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21]

5) 박영만, 『조선전래동화집』(1940)

| 연번 | 제목 | 연번 | 제목 | 연번 | 제목 |
|---|---|---|---|---|---|
| 1 | 열두 삼천 | 26 | 점 잘 치는 훈장 | 51 | 토끼와 사슴이와 두꺼비 |
| 2 | 이야기는 이야기할 것이지 넣어둘 것은 아니오 | 27 | 구대 독자 | 52 | 난장이의 범사냥 |
| 3 | 소 되었던 사람 | 28 | 요술장이의 아내 | 53 | 길고도 고소한 이야기 |
| 4 | 범과 효자 | 29 | 삼백 냥 재판 | 54 | 개와 고양이 |
| 5 | 봉익이 김선달 | 30 | 코 긴 공주 | 55 | 고생이란 것을 안 사람 |
| 6 | 노인과 양자 사슴이 뱀 | 31 | 황 정승의 아가씨 | 56 | 도둑놈의 이름은 신재복 |
| 7 | 계수나무 할아버지 | 32 | 박 두꺼비 | 57 | 요술 쓰는 색시 |
| 8 | 금의 귀신 된 이야기 | 33 | 효자 이야기 | 58 | 중과 며느리 |
| 9 | 엿 잘 먹는 훈장 | 34 | 소고기 재판 | 59 | 용왕의 딸 |
| 10 | 잊기 잘하는 사람 이야기 | 35 | 장수 되는 물 | 60 | 노루 꽁지 없어진 이야기 |
| 11 | 박혁거세 임금님 | 36 | 호박에 돈을 꽂아가지고 오던 소년 | 61 | 거짓말해서 아내 얻은 사람 |
| 12 | 목침 이야기 | 37 | 학과 부기 | 62 | 원앙새 |
| 13 | 좁쌀 한 알로 정승의 사위 된 사람 이야기 | 38 | 삼년 석달 계속하는 긴 이야기 | 63 | 옴두꺼비가 장가든 이야기 |
| 14 | 독수리 된 왕 | 39 | 갈대잎 | 64 | 꾀 많은 부인 이야기 |
| 15 | 까투리 이야기 | 40 | 배가 아프면 개를 그려 먹어라 | 65 | 범이 개 된 이야기 |
| 16 | 맷돌 조롱박 장구 | 41 | 오형제 | 66 | 붙어라 떨어져라 |
| 17 | 불평가 이야기 | 42 | 산과 바다가 된 이야기 | 67 | 십 년간 지팡이를 두른 사람 |
| 18 | 혹 뗀 이야기 | 43 | 코 길어진 욕심쟁이 | 68 | 머리 셋 가진 중과 포수 |
| 19 | 청개구리 이야기 | 44 | 곶감 이야기 | 69 | 예쁜이와 버들이 |
| 20 | 놀부와 흥부 | 45 | 북두칠성 | 70 | 자글대 이야기 |
| 21 | 선녀의 옷과 수탉 | 46 | 효자와 산삼 | 71 | 회오리바람 재판 |
| 22 | 헌데장이 코흘리게 눈첩첩이 | 47 | 쿨덕이 이야기 | 72 | 연이와 칠성이 |
| 23 | 교만한 왕 이야기 | 48 | 지혜 다루기 | 73 | 해와 달이 된 이야기 |
| 24 | 밥 안 먹는 안해 구한 사람 | 49 | 장원 급제한 소년 | 74 | 꿀 강아지 |
| 25 | 꾀 많은 김서방 | 50 | 장화홍련 | 75 | 까치의 보은 |

박영만(朴永晩:1914-1981)이 『조선전래동화집』을 출판한 시기는 1940년, 그의 나이 27세 되던 때이다.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중퇴하고

21) 최운식, 김기창이 조사한 전래동화 목록(1959-1995년 간 동화집 대상)을 보면, 『조선동화대집』 83편 중 30편이 빈도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운식·김기창 저,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416-454쪽의 표를 참조할 것.

돌아온 직후 그는 자신이 수집한 설화를 동화로 개작해 출판했다. 박영만은 소학교를 다니던 때부터 전래동화를 수집하고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10여 년간의 수집과 정리 작업을 거쳐 탄생한 것이 『조선전래동화집』이다. 박영만의 동화에 대한 인식과 그가 출판한 동화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영만은 전래동화의 수집과 정리에 대해 매우 진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래동화를, "수천 년에 걸쳐 조상들이 말하고 듣고 생각한 흙의 철학이고, 흙의 시고, 거룩한 꽃"이라고 비유하여, 전래동화가 공동체 및 민중들의 삶의 진실한 소산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는 전래동화가 흙이요 꽃같이 순연(純然)한 것인데, 적당한 때를 놓치면 사라져 버리거나, 또는 외국의 문학 작품과 섞여버려서 그 순연함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서 전래동화의 '토속성', '순수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박영만의 동화는 본인이 현지에서 채록한 신화, 전설, 민담을 저본으로 한 것인데, <박혁거세 임금님>, <계수나무 할아버지>, <산과 바다가 된 이야기>, <열두 삼천> 등처럼 신화나 특정 지역의 전설 및 민담을 동화화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신이담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우세하다. 전체 75편 중 신이담이 41편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담 23편, 일반담 6편, 형식담 3편, 동물담이 2편 순으로 분류된다. 신이담은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상적인 초인들의 신비스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와 문제해결 방식에 민중적 상상력이 많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박영만 동화는 주제 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부귀, 효, 지혜와 재치, 용기, 보은, 충직함, 선행, 웃음' 등의 주제가 빈도수가 높으며, '권선징악, 신의, 형제우애, 사랑, 부부애, 행운, 고생의 의미, 운명, 변신'과 같은 주제가 그 다음을 잇는다. 또 특별히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해와 달의 유래, 수탉의 유래, 독수리의 유래, 왕의 탄생, 구렁이의 복수, 이야기 귀신의 복수’ 등과 같이 유래나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둔 이야기도 적지 않다. 이외에 ‘교만, 불평, 간음, 욕심, 어리석음’ 등 부정적 가치에 대한 경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조선동화집』이나 『조선동화대집』에 대비하여 박영만 동화집은 매우 다양한 주제의식이 구현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윤리적 측면이나 교훈성은 약하다. 이는 설화를 현지 채록하여 동화화한 데에서 온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인물의 성격 면에서는 기존 선인과 악인의 구도에 더하여, 녹족부인, 효자, 훈장, 게으름뱅이, 박혁거세, 정승, 가난한 형제, 왕, 요술쟁이, 군수, 공주, 신랑, 오형제, 도둑, 중과 며느리, 장화와 홍련, 난장이, 노인, 사냥꾼, 포수, 연이와 칠성이 등 다양한 인물 군상이 등장한다. 그중에서 트릭스터와 신격(조물주, 계수나무 신령, 해와 달, 용왕, 선녀, 북두칠성 신, 사슴 괴물, 도깨비, 산신령, 이야기 귀신, 금 귀신, 박쥐도둑, 머리 셋 달린 중 등)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기본적으로 주인공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로서 모험과 도전을 통하여 부귀, 성공, 결혼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에 더하여 일군의 트릭스터(봉익이 김선달, 훈장을 놀려먹은 학동, 쿨덕이, 머슴 자글대, 가난한 남자 등)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기존의 질서와 윤리관을 전복시키려 한다. 동물로는 뱀, 까투리, 사슴, 소, 뱀, 범, 독수리, 개구리, 닭, 토끼와 사슴, 두꺼비, 개와 고양이, 원앙새, 까치, 강아지 등이 등장한다.

다섯째, 박영만의 동화의 문장은 매우 매끄럽고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박영만은 작가적 자질이 뛰어나 자신이 채록한 민담을 구성 및 문장 면에서 잘 다듬어 동화화하였다. 박영만은 문체 면에서 전래동화 특유의 구어체를 잘 활용하면서도, 의성어·의태어를 빼어나게 활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화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바로 앞에서 말하는 듯한 구어체의 문장 등 전래동화 구연의 현장감을 일깨우는 문장과 말투를 잘 활용하였다.

또한 이야기 구조의 특징으로서, 박영만은 민담 특유의 단순성, 반복성의 원리를 잘 활용하여 동화를 구현하였다. 박영만은 많은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인물의 행동 및 사건의 전개를 서술할 때, 복잡한 심리 묘사나 설명, 복선 등이 없이 가능한 한 단순간명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 스토리가 반복・확대・결합되면서 이야기가 완결되거나 길어진다. 이를 '단순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라고 개념지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전래동화 일반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75편의 동화 모두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박영만 동화 작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꼽을 만하다.

요컨대,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은 저자 자신이 현지 채록한 설화의 성격을 살리면서 동화화한 것이라 다른 동화집에 비해 다양한 캐릭터와 주제, 지역성이 나타난다. 또한 문장 표현과 이야기의 구성 면에서 잘 다듬어지고 세련된 동화의 면모를 보인다.

## 4. 인물과 주제의 종합적 고찰

이상에서 논의한 근대 한국 전래동화집에 그려진 인물과 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물의 성격

#### (1) 사람

| 연번 | 동화집 | 등장인물 - 인간 |
|---|---|---|
| 1 | 조선교육옛이야기(1917) | 다양한 바보 상,탐욕스런 중과 지혜로운 동자승,임금,대신,며느리,혹부리영감,슬기로운 아이, 신랑신부, 나무꾼, 거지 |
| 2 | 조선동화집(1924) | 다양한 형제 상(의좋은 형제,욕심많은 형과 착한 동생,놀부와 흥부 등),혹 달린 남자,군수와좌수,아이,점쟁이,장님의 딸, 불쌍한 만수,장님,늙은어미와 아들,손자 |

| | | |
|---|---|---|
| 3 | 조선동화집(1926) | 어린이,의좋은 형제,불쌍한 머슴,나무꾼,혹부리 영감,바보 가족,바보 형과 착한 동생,점치는 돌이,소도둑,진순이 남매,오누이,효자,장님,풍수가,가난한 남자 |
| 4 | 조선동화대집(1926) | 외쪽이,소년군수, 어린이, 한량,어린 이오성,바보,완고양반,자린고비,태전꾼,노인 |
| 5 | 조선전래동화집(1940) | 녹족부인,효자,훈장,게으름뱅이,박혁거세,정승,가난한 형제,왕,요술쟁이,군수,공주,신랑,오형제,도둑,중과 며느리,장화와 홍련,난장이,노인,사냥꾼,포수,연이와 칠성이,트릭스터(봉익이 김선달, 훈장을 놀려먹은 학동, 쿨덕이, 머슴 자글대, 가난한 남자 등) |

근대 전래동화집에서 공통되며 주목되는 인물상은 바보(1,3,4), 의좋은 형제(2,3,5), 욕심 많은 형과 착한 동생(2,4,5)과 탐욕스런 중(1,5) 형상이다. 꾀 많은 아이, 외쪽이, 효자, 혹부리 영감, 나무꾼, 흥부와 놀부, 트릭스터 형상도 빈도 수 높은 단어다.

왜 이렇게 다양한 '바보' 형상이 동화의 제재가 되었을까? 바보란 지혜가 부족하거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대 한국의 전래동화집에서는 '바보'나 '고지식한 사람'에 대한 풍자나 해학이 두드러진다. 왜 이 인물형상이 일본인이며 한국인 편자에게 똑같이 흥미로웠을까? 근대 일본 동화집에서는 '바보' 형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설화 전공자 조은애 교수(숭실대)에 의하면, 일본에서 바보는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차별받고 추방 당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들에게 바보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해방 이후 한국 전래동화에서 바보 인물 이야기는 거의 사라진다. 이 유형의 이야기가 더 이상 재미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어 동화집인 『조선동화집』(1924, 1926)에서 그린 '의좋은 형제'는 이상적인 형제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작품에서는 형제 간의 갈등이 훨씬 많이 그려졌다. 동화에서 그려진 형제상은 '욕심 많은 형(또는 바보 형)'의 횡포에 '착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동생'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후반부는 대부분 인과응보에 의해 동생이 성공하고 형은 징벌받고, 그리고 대부분 화해하는 결말이다.

꾀 많은 아이, 슬기로운 아이는 일제 시기 꽤 사랑받는 인물 형상이었다. 심의린과 박영만은 이오성, 외쪽이, 자글대 형상을 통해 악동과 트릭스터를 그렸다. 식민지 상황에서 꾀많은 아이는 호랑이, 바보, 완고한 지식인에 맞서 자신을 지키고 운명을 개척하는 인물상으로 그려졌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좌절과 패배를 모르는 주인공, 어리석은 강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약자, 웃음 속에서 보여주는 삶의 진실 등은 우리 설화에 내재된 민중의식이라고 하는데[22], 이러한 민중의식을 심의린, 박영만의 근대 전래동화집이 구체적으로 실현하였음을 평가하고 싶다.

(2) 동물

| 연번 | 동화집 | 등장인물 - 동물 |
|---|---|---|
| 1 | 조선교육옛이야기(1917) | 호랑이,거북이,토끼,두꺼비,소,당나귀,여우 |
| 2 | 조선동화집(1924) | 개,여우,원숭이,토끼,거북이,두꺼비,뱀과까치,두꺼비,개구리,사슴,제비,다양한 호랑이 상(은혜모르는,천벌받은,겁쟁이,바보,산신,인자한 호랑이 등) |
| 3 | 조선동화집(1926) | 다양한 호랑이 상(어리석은,은혜 모르는,착한,자신없는,잔인한 호랑이),거북이,원숭이와 개와 여우,개구리,사슴,곰,토끼와 거북이와 두꺼비,까치, 잉어,큰 게와 곰과 돼지,교활한 토끼,배신당한 곰 등 |
| 4 | 조선동화대집(1926) | 다양한 호랑이 상, 토끼, 곰, 멧돼지, 지네, 이리, 여우, 원숭이, 염소, 개, 두꺼비, 자라, 고양이, 멸치, 망둥이, 가자미 |
| 5 | 조선전래동화집(1940) | 뱀,까투리,사슴,소,뱀,범,독수리,청개구리,수탉,토끼와 사슴, 두꺼비,개와 고양이,원앙새,까치,강아지 |

근대 한국 전래동화를 대표하는 동물은 단연 '호랑이'다. 『조선교육옛이야기』(1917)에서부터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에 이르기까지 위 다섯 편 동화집에서 호랑이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동물 제재다. 호랑이는 다양한 성격(은혜모르는,천벌받은,겁쟁이,바보,산신,인자한 호랑이 등)으로 그려진다. <호랑이와 곶감>은 가장 유명한 호랑이 이야기인데, 이 호랑이는 '어리석은 호랑이'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일본

22)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70~74쪽.

어 동화집의 편자들도 호랑이 이야기를 많이 동화화하였다. 오히려 박영만 동화집에서는 호랑이(범) 이야기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

이와 짝을 맞추는 동물은 '토끼'다. 사납고 바보스런 호랑이에 맞선 '꾀 많은 토끼' 상은 가장 인기 있고 재미있는 동물 캐릭터였다. 일본인들이 편찬한 동화집에서 인상적인 것은 <교활한 토끼>에 그려진, 호랑이를 불태워 죽이고 옆집에서 식칼을 빌려 호랑이 고기를 발라먹은, 그리고 식칼을 빌려준 주인에게는 잇 사이에 낀 고기를 뱉는, '악독한 토끼', '엽기 토끼'다.

이외에도 거북이, 여우, 두꺼비, 사슴, 까투리, 원숭이, 개 등이 동화의 동물 제재로 쓰였다.

(3) 신격

| 연번 | 동화집 | 등장인물 - 신격 |
|---|---|---|
| 1 | 조선교육옛이야기(1917) | 도깨비, 지장보살 |
| 2 | 조선동화집(1924) | 장승,선녀,용왕,신선,귀신(도깨비),큰게와 돼지와 곰, |
| 3 | 조선동화집(1926) | 선녀,천녀,도깨비,산사나이,신,요마,신령님,견우직녀 |
| 4 | 조선동화대집(1926) | 신선,선녀,도깨비,용왕 |
| 5 | 조선전래동화집(1940) | 조물주, 계수나무 신령, 해와 달, 용왕, 선녀, 북두칠성 신, 사슴 괴물, 도깨비, 산신령, 이야기 귀신, 금 귀신, 박쥐도둑, 머리 셋 달린 중 등 |

근대 전래동화집의 가장 대표적 신격은 '도깨비'다. 가장 많이 그려지는 형상은 <혹부리 영감>에 등장하는 '어리숙한' 도깨비다. 도깨비는 노래를 좋아해 혹 달린 영감에게 속아 혹을 떼 주고 보물을 주며, 호두 깨무는 소리에 도깨비 방망이를 놓고 달아나기도 하는 존재다. 도깨비는 근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신격이었다. 일본인 편자들은 도깨비를 '귀신', '오니'로 번역하기도 했다. 해방 뒤에도 도깨비 캐릭터는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꾸준히 사랑받다가, 2016년 김은숙 극본의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에서 천지개벽 수준의 성격 변신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용왕, 선녀, 신선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 외에 장승, 박쥐도둑, 머리 셋 달린 중 등이 등장한다. 박영만 동화집에서는 꽤 다양한 신격, 괴물이 그려져 흥미롭다.

2) 주제적 특징

| 연번 | 동화집 | 주제적 특징 |
|---|---|---|
| 1 | 조선교육옛이야기 (1917) | 지혜와 꾀, 정직, 근면, 효행 강조<br>고지식함, 도박, 술취하는 것 경계 |
| 2 | 조선동화집(1924) | 형제 간의 우애 및 화해,지혜,착한 마음, 효심,우정,꾀,보은,선행,유순,친절,진실한 삶 강조<br>욕심 많고 무자비함,교활하고 악한 마음, 게으름 경계 |
| 3 | 조선동화집(1926) | 효성,우애,성실,용기,보은,운수,지혜 강조<br>게으름,배신,욕심,교활함 경계 |
| 4 | 조선동화대집 (1926) | 지혜와 분별력, 선행, 형제우애,보은,효성 강조<br>어리석음과 완고함 비판 |
| 5 | 조선전래동화집 (1940) | 부귀,효,지혜와 재치,용기,보은,충직함,선행,웃음, 권선징악,신의,형제우애,사랑,부부애,행운,고생의 의미,운명,변신 강조.<br>교만, 불평, 간음, 욕심, 어리석음 경계 |

동화는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의 주제, 교훈과 계몽의 속성을 갖고 있다. 위 표에 기술된 것처럼 일본인 편자들은 형제 우애, 효성, 정직, 근면을 좀 더 많이 주제로 내세웠고, 한국인 편자들은 같은 주제를 그리면서도 지혜와 꾀, 분별력, 재치, 용기를 좀 더 많이 내세웠다. 박영만은 현지에서 채록한 설화를 살린 것이 많아서 그런지 부귀, 재치, 사랑, 부부애, 고생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부정적 윤리 덕목으로 내세워진 것은 고지식함, 도박, 술 취하는 것(<1>), 욕심 많고 무자비함, 교활하고 악한 마음, 게으름(<2>), 게으름, 배신, 욕심, 교활함(<3>), 어리석음, 완고함(<4>), 교만, 불평, 간음, 욕심, 어리석음(<5>) 등이었다. 욕심 많은 것, 게으른 것, 어리석은 것, 교만함은 공통적으로 경계 대상이 된 인물의 성격이자 주제였다.

『조선동화집』(1924)에서는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교훈적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표현하였고, 심의린, 박영만 동화집에서는 같은 권선징악의

주제라도 서사성을 강화하여 전달하였다. 서사성이 약하면 동화는 윤리적 주제를 전달하기 바쁘고, 인물의 형상화, 서사성이 좋은 작품은 이를 더 감동 있게 전달할 수 있다. 동화를 교육적 제재 위주로 보면 동화는 단순해지기 쉽다.

## 5. 맺음말

'동화', '고래동화', '옛이야기' 등으로도 호칭되는 '전래동화(傳來童話)'는 고전서사 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재화된 근대 서사문학 텍스트를 일컫는 용어이다. 필자가 근대 시기의 전래동화집에 주목한 이유는 이 시기에 '신화, 전설, 민담, 야담, 고소설' 등 중세시기에 전래하던 고전서사 장르가 구체적인 편집과 출판 행위를 통해 전래동화의 목록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근대 시기 출판된 한국전래동화집의 출판과 문예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본론에서는 첫째, 근대 전래동화집의 출판과정, 둘째, 근대 전래동화집의 문예적 성격, 셋째, 인물과 주제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상에서 논한 내용을 약술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근대 전래동화집의 출판과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저명한 신화학자이자 비교문학 연구자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는 조선의 문헌설화와 전설, 다카하시 도루, 시미즈 효조 등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1917년 『新日本教育昔噺』을 출판하였다. 독일 동화 연구자 다나카 우메키치(田中梅吉)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에서 1910년대에 조사한 민속자료 중에서 25편을 선정하여 1924년 『조선동화집』을 출판하였다. 미술연구자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는 1925년에 경북사범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조선의 동화를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1926년에 『조선동화집』을 출판하였다. 사범학교 교사이자 한글 연구자인 심의린(沈宜麟)은 조선 아동들의 한글 교육의 일환으로 1926년 『조선동화대집』을 출간하였다. 동화작가 박영만(朴永晩)은 1920년대부터 10여 년간 자신이 수집한 작품들을 동화화하여 1940년 『조선전래동화집』을 출간하였다.

둘째, 근대 시기에 출판된 다섯 편의 전래동화집을 대상으로 수록작품의 유형적 특징, 등장인물의 제재, 주제, 문장 표현 등을 항목으로 문예적 성격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카기 도시오는 한국과 일본의 동화가 유사하면서도 차이나는 지점이 있음을 흥미롭게 여겨 작품을 선정하였고, 재미있는 소담을 많이 수록하여 독자들이 이야기를 즐기는 가운데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나카 우메키치의 『조선동화집』은 조선총독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한 조선의 민담을 취사선택하여 '동화'라는 근대 아동문학 장르를 표방하며 출판한 한국 최초의 전래동화집이다. 『조선동화집』은 우리 전래동화 형성과 전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나카무라 료헤이는 2년 간의 조선 체류 기간 동안 한국의 전래동화를 흥미롭게 인식하고 일본어로 된 선행 작품집들을 편집하여 일종의 전래동화 교합본을 출판하였다. 그 작품 구성과 문예적 성격은 안이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은 한글로 된 최초의 전래동화집이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글로 된 전래동화집은 많지 않았는데, 이 동화집은 문학성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독자들의 호응도 컸다.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은 저자 자신이 현지 채록한 설화의 성격을 살리면서 동화화한 것이라 다른 동화집에 비해 다양한 캐릭터와 주제, 지역성이 나타난다. 또한 문장 표현과 이야기의 구성 면에서 잘 다듬어지고 세련된 동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셋째, 근대 전래동화의 인물과 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근대 전래동화집에서 공통되며 주목되는 '인물'상은 바보, 의좋은 형제, 욕심 많은 형과 착한 동생과 탐욕스런 중 형상이다. 꾀 많은 아이, 외쪽이, 효자, 혹부리 영감, 나무꾼, 흥부와 놀부, 트릭스터 형상도 자주 등장하였다. 대표적 '동물'상은 '호랑이'이며, 이와 짝을 맞춰 '토끼'도 비중있게 그려졌다. 이외에도 거북이, 여우, 두꺼비, 사슴, 까투리, 원숭이, 개 등이 동화의 동물 제재로 쓰였다. 대표적 '신격'은 '도깨비'이며, 그 다음으로 용왕, 선녀, 신선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주제를 고찰한 결과, 일본인 편자들은 형제 우애, 효성, 정직, 근면을 좀 더 많이 주제로 내세웠고, 한국인 편자들은 같은 주제를 그리면서도 지혜와 꾀, 분별력, 재치, 용기를 좀 더 많이 내세웠음을 알 수 있었다.

근대 시기 전래동화집은 고전서사가 근대 시기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향유 재화되는 양상을 전승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출판물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개별 전래동화집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별적 성격과 성취를 평가하고, 그 위에서 근대 전래동화집의 전체적 양상 및 관계를 조망하려고 하였다. 통시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들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점이 있었다면, 학계제현의 질정을 통해 논점을 재확인하고, 좀 더 정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6월 학술대회에서 부경대 곽진석 교수님께 받은 질의 중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다. 차후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재철, 「N.G. 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 『한국설화문학의 탐구』, 단국대 출판부, 2009.

권혁래, 『일제 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김광식·이시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제이앤씨, 2014.
김환희, 『옛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2008.
나카무라 료헤이 저, 김영주·이시준 옮김, 『완역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 박문사, 2016.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 저,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편, 『신일본교육구전설화집』(영인), 제이앤씨, 2014.
박영만 편, 권혁래 역해, 『화계 박영만의 <조선 전래동화집>』, 한국국학진흥원, 2006; 보고사, 2013.
심의린 편, 최인학 번안, 『조선동화대집』, 민속원, 2009.
안상훈 옮김, 『조선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저, 『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보고사, 2013.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_____, 『증보개정판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최운식·김기창,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⑵ 논문

권혁래, 「조선총독부 편 『조선동화집』(1924)의 성격과 의의」, 『동화와번역』 5,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3, 63-98쪽.
_____, 「옛이야기, 동화로 쓰기와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1940) : 식민지 시기 3대 전래동화집 <조선전래동화집>과 작가 박영만에 대하여」, 『동화와번역』 10,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5, 93-128쪽.
_____, 「근대초기 설화·고전소설집 『朝鮮物語集』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학』 64, 한국언어문학회, 2008, 217-246쪽.

_____,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학사연구』 39, 민족문학사학회, 2009, 90-121쪽.

今井信雄, 「新しき村余錄(中)-中村亮平伝-」, 『成城文藝』 52, 1968.

김경희,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16, 1-266쪽.

김광식, 「손진태의 비교설화론 고찰-신자료 발굴과 저작목록을 중심으로」, 『근대서지』 5호, 근대서지학회, 2012, 45-70쪽.

_____, 「우스다 잔운(薄田斬雲)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관한 연구」, 『동화와 번역』 20, 건국대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0, 13-40쪽.

_____, 「近代における朝鮮說話集の刊行とその研究-田中梅吉の研究を手がかりにして」, 徐禎完・增尾伸一郎 外, 『植民地朝鮮と帝國日本-民族・都市・文化』, 東京; 勉誠出版, 2010.

김광식·이시준,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의 조선민간전승 <조선동화집> 고찰」, 『일본연구』 55,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3, 73-95쪽.

_____,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와 『조선동화집』 고찰-선행 설화집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57, 한국일본어문학회, 2013, 237-259쪽.

김환희, 「옛이야기 전승과 언어 제국주의 : 강제된 일본어 교육이 <나무꾼과 선녀> 전승에 미친 영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81-118쪽.

박미경, 「일본인의 조선민담연구 고찰」, 『일본학연구』 28, 단국대 일본학연구소, 2009, 73-93쪽.

오타케 기요미(大竹聖美), 「1920年代 日本의 兒童叢書와 「朝鮮童話集」」, 『동화와번역』 2,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1, 5-32쪽.

_____,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와 근대 한국」, 『한국아동문학연구』 15,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149-167쪽.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 40-1, 한국민속학회, 2008, 261-297쪽.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 『어문학론총』 24,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5, 1-26쪽.

<Abstract>

# A Study on Literary personality of Korean Fairy Tales Collections during Modern Period

Kwon, Hyeok-Rae*

Fairy tales is a modern narrative literature selected and rewritten for children in classical narrative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ublishing and literary character of Korean fairy tales collections published in modern times. I wrote, first, the process of publishing modern Korean fairy tales collections, second, the literary character of modern Korean fairy tales collec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and themes.

Takagi Toshio(高木敏雄), Tanaka Umekichi(田中梅吉) and Nakamura Ryohei(中村亮平) published Korean fairy tales collections, written by Japanese in 1917, 1924, and 1926. The beginning of Korean fairy tales collections was led by these Japanese researchers. In 1926 and 1940, Shimg Yi Lin and Park Yong Man published the Korean fairy tales collections written by Korean.

The characteristic figures in Korean fairy tales collections is the idiot, the good brother, the greedy brother, the good brother etc. A lot of children, outsiders, scorpions, hornbills, woodcutters, heungbu, nolbu, and trickster appeared frequently. The characteristic animals are tigers, rabbits, and turtles, foxes, toads, deer, fours, monkeys, and dogs. The representative ‘Goddess’ is ‘Dokkaebi(a goblin)’, followed by

* Yong In University

The Sea God, a nymph, a benevolent wizard living in the mountain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mes, the Japanese editors have put more emphasis on brotherly love, filial piety, honesty, and diligence, and Korean editors have made more wisdom, trickery, discernment, wit and courage while drawing the same subject.

Key Words : Korean Fairy Tales Collections, Takagi Toshio(高木敏雄), Tanaka Umekichi(田中梅吉) and Nakamura Ryohei(中村亮平), Shimg Yi Lin, Park Yong Man, tigers, Dokkaebi(a goblin)

▌논문접수 : 2017년 7월 20일
▌심사완료 : 2017년 8월 19일
▌게재확정 : 2017년 8월 21일